

송도 신도시 투자유치 관련 CEO접견 다과회

우리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게일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예감을 가졌습니다. 자신감 있고 활력 있는 인사 말씀을 해줬는데 그 느낌이 송도신도시의 앞날을 예고, 상징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경제인들에게 여러분이 한국의 안정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확실할 때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근거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송도신도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철강회사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송도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게일사와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미래의 성패가 이 사업에 달

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송도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개월간 모색과정을 거쳤고, 이제 방향을 확실히 잡고 한 방향으로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는 국내적으로 반기업적 국민정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5년 기간 동안 일부 남아 있는 노사문제라든지 기업하기 불편한 장애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행사가 성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훗날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